

# 보험사 녹색경영의 필요성 및 과제

이 석 호 (연구위원, 3705-6391)

주요 선진국의 경우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환경적 요인을 감안한 경영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으로 부각되고 환경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영업전략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보험사는 상품개발을 비롯한 모든 비즈니스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녹색경영 확대 추세에 대비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당국은 보험사의 녹색경영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행함과 아울러 규제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녹색성장’<sup>1)</sup>과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녹색경영’<sup>2)</sup>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녹색성장을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으로 적극 추진함에 따라 녹색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역할 제고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보험사의 녹색경영 필요성 및 주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보험사의 녹색경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한다.
- 2) 녹색경영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신의 업종(주력업무)과 관련하여 친환경적 요소가 접목된 상품을 개발(또는 사업에 진출)하는 행위, 그리고 업무프로세스 및 조직문화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는 행위,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친환경사업 등에 투자하는 행위, 환경 등과 관련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 보험사 녹색경영의 개념 및 필요성

보험사의 녹색경영은 소비자의 친환경행위를 유도하거나 녹색산업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녹색보험’)의 개발 및 판매, 보험사의 일상 비즈니스 및 업무 프로세스 과정에서의 친환경행위 실천, 기후변화·환경관련 사고의 예방활동, 친환경사업에 대한 투자활동, 환경보호와 관련된 각종 교육·홍보활동 등을 지칭하는 소위 ‘녹색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로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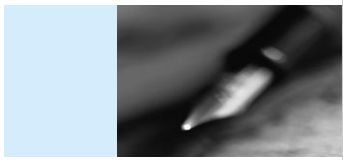
주요 선진국의 경우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환경적 요인을 감안한 경영활동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녹색경영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보험산업<sup>3)</sup>이 본연의 핵심상품(업무)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및 경영행위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에 동참하는 것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그 영향과 의미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사의 녹색경영은 해당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보험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보험 등을 통한 녹색경영은 보험사에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경영<sup>4)</sup>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녹색경영은 손해를 감소시킴으로써 보험사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보험사는 본연의 핵심기능인 위험의 인수·보장을 통하여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재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위험 또는 손실인자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예방하는 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손해를 감소 및 이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녹색경영은 보험산업의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보험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환경적 요인을 감안한 경영활동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3) 보험산업은 영업수입과 투자수입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Mills, E., "From Risk to Opportunity, Insurer Responses to Climate Change", Ceres, April 2009).
- 4) 지속가능경영이란 경제, 환경, 사회적 이슈를 기업의 본질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포함하여 성과를 일구어내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성장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에서는 보험사의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보험권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이 보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가 녹색경영의 실천을 통해 녹색성장 및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보험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5)</sup> 또한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녹색경영이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차원의 규제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 차원에서라도 국내 보험사들은 녹색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선진국 보험사의 녹색경영 현황

보험사의 녹색경영 방식 중 하나인 녹색보험은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환경보호 및 녹색성장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sup>6)</sup> 예를 들어, 최근 미국 및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실제 주행한 운행거리에 연동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동 상품의 출시로 대기오염 감소, 유류 절감, 자동차사고 감소 등의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 자동차 수리 및 부품 교체 시 보험료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통해 재활용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자동차재활용 부품관련 보험도 출시 중이고, 주택이나 건물 등에서 화재나 여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친환경자재를 기준으로 재물복구비용을 지급하여 주는 상품인 환경친화 재물복구비용보험도 시판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에너지효율 프로젝트의 에너지절감 성과가 예상목표에 미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부분을 보상해 주는 에너지절감보험,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환경보호 및 녹색성장 지원 등과 관련된 보험상품인 소위 녹색보험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판매 중이다.

5) 보험사의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적책임과 관련된 설문조사(안철경 외,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2009) 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자의 86.2%가 보험사의 사회공헌 및 책임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국민 3명 중 2명(66.3%)은 향후 보험상품 구입 시 보험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녹색보험(Green Insurance) 도입방안”,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2009. 4. 15 및 주요 선진국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였음.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 주는 재생에너지프로젝트보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손실을 보상해주는 친환경농산물보험, 자전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 파손 및 도난 등에 대해 보상하여 주는 자전거보험 등도 활성화되어 있다. 심지어 녹색보험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보험사들은 녹색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 외에 녹색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녹색성장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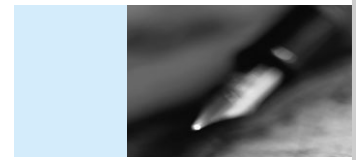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보험사들은 이처럼 녹색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 외에 녹색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녹색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보험사들이 사내 에너지절감 프로그램 마련,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차량 지원 등을 통해 회사 내부운영 및 일상업무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7)</sup> Allianz, ING, AXA, State Farm, Swiss Re사 등은 보험사의 전통적인 강점인 위험관리능력을 바탕으로 기후변화·환경오염 위험과 관련하여 개인, 일반기업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고예방활동 및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친환경주택의 구입·개조에 필요한 대출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대체에너지 프로젝트, 재활용사업과 같은 친환경사업 및 관련 펀드를 대상으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선진국 보험사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매체·채널을 통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내 보험사의 녹색경영 현황 및 과제

보험사의 녹색경영에 따른 성과 및 관련 규제·제도 등에 대한 불확실성,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녹색경영이 걸음마 단계이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자전거보험, 운행거리연계자동차보험 등을 비롯한 몇몇 녹색보험상품이 출시되었거나 도입이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품의 다양성, 보장내용 및 판매실적 등의 면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녹색경영의 또 다른 형태인 녹색사업을 실천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업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7) 전 세계 보험사들이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매년 약 1,200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약 240만대의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상응하는 것으로 추산된다(Mills 2009).



는 국내에서 ‘녹색경영’이 용어조차도 생소할 정도로 아직 도입 초기단계인 것이 주원인이겠지만, 보험사의 녹색경영에 따른 성과 및 관련 규제·제도에 대한 불확실성,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도 추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사의 녹색경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험사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한다. 보험사는 녹색경영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한다거나 단기적인 재무적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성장동력 및 지속가능경영 과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녹색보험상품 또는 녹색사업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수반되고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신뢰도 및 이미지 향상, 녹색산업의 성장 촉진, 기후변화·환경관련 사고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험사의 수익성 및 경쟁력이 제고되는 선순환과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녹색보험상품 및 녹색사업의 도입과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상품 및 사업별로 충분한 사례분석,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치고 개별 보험사의 역량 및 국내시장 상황을 적절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사의 녹색경영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각종 유인책 및 규제의 시행에 있어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환경관련 규제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정·운영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 규제 관련 리스크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와 같이 보험사의 기후변화 위험과 관련된 공시(climate risk disclosure)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및 투자자는 해당 보험사의 관련 보험상품을 구매할 것인지 또는 해당 보험사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고, 감독기관도 보험사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의 적절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환경보호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개별 보험사뿐만 아니라 정부 및 협회 등의 차원에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KIF**

보험사는 녹색경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성장동력 및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의 녹색경영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각종 유인책 및 규제의 시행에 있어 일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